

# ‘新강진 시대’ 인구 정책 유명세... 벤치마킹 ‘열풍’

## 중앙정부·강원도 등 전국서 벤치마킹 발길 잇따라 빈집 리모델링·반값 강진여행... 1석2조 효과 ‘톡톡’

강진군이 주거, 일자리, 육아를 동시에 지원하는 차별화된 귀농·귀촌 인구 유입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전국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8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만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강원도 태백시, 전남 해남군, 전북 순창군 등 13개 지자체가 강진군을 방문해,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군이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을 배워갔다.

이달 초에는 경남 남해군의 장충남

군수를 비롯해 핵심전략추진단장, 관광진흥과장 등 군 관계자 14명이 강진군을 방문해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등 강진군의 인구정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빈집 리모델링 현장을 견학했다.

강진군의 인구 정책이 중앙정부를 비롯해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주목을 받으며, 중앙 언론에서 다루지는 것은 과감한 결단과 차별화된 시각으로 주거, 일자리, 육아를 동시에 지원하는 귀농 귀촌 인구 유입책을 펼치고 있는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군은 벤치마킹 방문 기관을 대상으로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주택 신축 지원사업, 신규마을 조성 사업 등의 ‘주거’ ▲푸소(FUSO) 시즌2운영, 강진 특화형 일자리 지원 등의 ‘일자리’ ▲전국 최고·최장 규모의 육아수당 등의 ‘육아’ 등 세 가지 분야의 인구정책에 대한 내용을 적극 공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반값 강진 여행’ 또한 남해 방문단과의 환담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강진 여행에서 쓰는 경비의 50%를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관광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해 축제, 관광 등 3차산업 뿐만 아니라 농특산물, 가공품 등 1차 산업의 소비를 촉진시켰다.



강진군이 추진 중인 인구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최근 경남 남해군 장충남 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강진을 방문했다. <강진군 제공>

강진의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농촌에 방치된 빈집 관리 문제도 해결하고 도시의 인구를 유입시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1석2조의 자구책으로 운영하면서 예비 귀촌인에게 단돈 1만원의 월세로 저렴하게 집을 임대해주는 파격적인 정책이다. 이는

농촌에 방치된 빈집 관리 문제도 해결하고 도시의 인구를 유입시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1석2조의 자구책으로 강진군에서 역점 추진 중이다. 현재 군에서 51가구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33가구는 준공됐다. 준공된 가구 중 15가구는 ‘강진품에(愛)’라는 자체 브랜드명과 함께 입주자 선정이 완료됐다.

강진품에(愛) 입주자는 권역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선발하고 있으며, 가구마다 평균 15대의 경정비를 기록하는 등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강진군 군수는 “올해만 벌써 전국 14여 곳의 공공기관에서 강진의 우수 인구정책을 배우기 위해 벤치마킹을 다녀갔다”며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인구 유입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타지자체들에게 도움을 주고 강진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성공모델인 ‘신강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기자>



올해 26회째를 맞이한 함평나비대축제에 18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인산인해를 이뤘다. <함평군 제공>

## 함평나비대축제 18만여 인파 ‘성황’

### 18만5천여명 방문 기록... 입장 수익 7억2천만원 달성 황금박쥐전시관·나비 날리기·바나나 따기 체험 ‘호응’

올해 26회째를 맞이한 함평나비대축제에 관람객들의 호평 속에 11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8일 함평군에 따르면 ‘나비 찾아 떠나는 함평여행’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올해 나비대축제는 전국을 대표하는 자연생태 지역축제로 18만5천500여명의 입장객이 다녀갔다. 입장료 수입은 7억2천900여만원이다.

군민이 참여한 농·특산물 판매장은 1억6천9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각종

판매장 매출과 부스 임대료 수입 등을 합하면 7억6천200여만원에 달한다.

이번 나비축제는 대표 나비인 산호랑나비를 비롯해 25만여마리의 나비와 다양한 초화류가 축제장을 장식했다.

유채꽃, 안개꽃, 꽃양귀비 등 봄꽃의 향연을 이룬 함평천 수변길과 엑스포공원 일대에서는 파스한 봄날의 속삭임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었다.

올해 새로 개장한 함평추억공작소는

70~80년대 함평의 실제 생활상을 축소·재현해 시대의 역사와 향수를 느낄 수 있었고, 황금박쥐 조형물을 전시해 놓은 황금박쥐전시관도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 최고의 인기프로그램은 친환경농업관에서 처음 선보인 ‘함평에서 처음 따보는 바나나’로 나무에 직접 올라가 수확하는 체험 기회를 제공해 가족단위 방문객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 밖에 야외 나비 날리기, 나비 의문에서 중앙광장까지 펼쳐진 나비판타지가 퍼레이드쇼도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으며 장사전을 이뤘다.

<함평=김연수기자>



## 무안군, 보건소·복합문화센터 개청식 ‘성료’

### 제55회 무안군민의 날 동시 진행

무안군이 ‘제55회 무안군민의 날 기념식과 무안군 보건소·복합문화센터 개청식’을 성료했다. <사진>

8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7일 600여명의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보건소(옛 5일 시장) 신청사 광장에서 군민 화합을 통한 상생 발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신청사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보건소·복합문화센터 개청식과 함께 진행했다. 행사를 알리는 마을공동체의 날, 풍물공연 퍼포먼스와 현악 6중주 등 다양

한 장르의 공연을 시작으로 군민현장 낭독, 시상식, 고향사랑 기탁식, 기념사와 축사 순으로 1부 기념식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 영예로운 ‘무안군민의 상’ 시상자는 지역사회개발부문에서 양승길(현경면)·노갑지(해제면) 씨가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무안군은 무안군 보건소·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펼친 서상석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무안군 보건소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에 기여한 정수연 무안군 전 보건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무안=김상호기자>

## ‘1004섬 신안군 기념우표’ 발행 전국 우체국서 판매 계획

신안군은 “최근 ‘1004섬 신안군 기념우표’를 발행했다”고 8일 밝혔다.

1004섬 신안군 기념우표는 신안군과 목포시 우체국에서 판매하며, 이후 전국 우체국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제작된 기념우표는 지난달 17일 신안군,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목포우체국이 신안군 농수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을 기념하기 위해 발행됐다.

이번 우표는 신안군의 유명 관광지인 섬꽃, 축제, 문화유산 등 신안군만의 특별한 아름다움과 매력을 우표라는 작은 액자를 통해 표현했다.

군은 우표를 통해 신안군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신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안의 다양한 테마를 기념 우표로 제작해 신안군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안=양훈기자>

## 전남서부보훈지청, 목포 오월길 걷기 행사

### 목포여중 3학년 42명·5·18사적지 탐방

전남서부보훈지청은 8일 “지난 7일 목포여자중학교 3학년 학생 42명과 함께 ‘목포 오월길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목포 오월길 걷기’는 목포에서 일어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알아보고, 오월의 정신을 되새기는 행사로 ‘모두의 오월, 민주를 그리다’ 5·18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학생들은 해설사와 함께 목포의 5·18 사적지인 목포근대역사관·목포중앙교회 옛터, 동아약국·안철 선생 가옥 옛터, 중앙광설시장 옛터, 목포역 등 5곳을 직접 거닐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탐방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5·18민주화운동이 광주에서만 일어난 줄 알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목포에서도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돼 놀라웠다”며 “매일 다니던 학교 주변에 5·18사적지가 있는 것도 처음 알게 됐



‘모두의 오월, 민주를 그리다’ 목포 오월길 걷기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목포=정해선기자>

## 나주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 월10만원→12만원·지원 대상 확대

나주시는 8일 “지난해 보훈명예수당에 이어 오는 7월부터 ‘참전유공자’ 관련 수당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2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유족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기존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도 기존 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 유족에서 ‘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으로 확대했다. <나주=정충환기자>

회장은 “참전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고 참전수당을 인상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참전 유공자와 유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태 시장은 “참전유공자들의 고귀한 정신을 엄숙히 기리며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나주에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유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나주=정충환기자>

## 해남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바닥분수 개장

### 9월1일까지 매주 금·토·일... 1일 3회 운영

해남군은 8일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바닥분수(사진)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운영 기간은 오는 9월1일까지이며 매주 금·토·일에 운영한다. 이용 시간은 오전 11~12시, 오후 1~2시, 오후 3~4시 총 3회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분수대 저수조 청소·용수 교체 등의 관리를 위해 운영하지 않는다.

지난 2019년 문을 연 고천암 자연생태공원은 자연과 인간의 소통을 지향

하는 공간으로 어린이놀이터, 피크닉장, 바닥분수, 발담금시설, 연꽃습지, 갈대탐방로, 철새 탐조대 등의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해남=박필용기자>



## 완도군, 고향사랑기부금 2억 돌파

### 기업·자매결연 도시 대상 ‘찾아가는 홍보 활동’ 전개

완도군은 8일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2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완도군의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난달 말 기준 전국에서 1천922명이 동참하며 총 2억3천3만원이 모금됐다. 지난해 4월 말 모금액 1억3천3만 원 대비 1억여원이

추가 모금됐다. 특히 2023년 명예 군민으로 선정된 서중호(쑤아진산업 대표)가 ‘완도 고향사랑 서포터즈’로 참여하면서 임직원들과 함께 기부를 하고 활 진척을 담례 품으로 구매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

을 보냈다. <쑤아진산업 관계자는 “완도군을 통해 세액 공제 혜택 등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다”며 “내 마음의 고향, 완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앞선 결과는 향우회와 각계각층의 출향인들은 물론 기업·자매결연 도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완도=윤보현기자>